



광주재능시낭송협회 회원들이 펼치는 '고려인 퍼포먼스' 장면.

시와 음악, 광주 곳곳에 스며들다

광주재능시낭송협회 '광주를 누가 어떻게 노래했나' 공연 30일 ACC 극장3...시퍼포먼스·시낭송·시극·스포츠댄스 등

언제인가 쉽게 가을이 시나브로 곁에 와 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지쳐 있지만 계절의 변화까지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광주의 거리 곳곳에도 가을빛이 소리 없이 스며 들고 있다. 우리가 사는 고장이기에 평소에는 광주에 대한 별 감흥이 없다. 그러나 매년 5월이 돌아오거나 가을이 되면 광주에 대한 생각이 불현듯 일곤 한다.

때마침 '광주를 누가 어떻게 노래했나'를 주제로 한 시낭송을 비롯한 시극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오는 30일 오후 7시 ACC 극장3.

광주재능시낭송협회(회장 김귀숙)가 마련한 제29주년 정기공연이 그것. '무등산도 금강하고, 5·18도 금강하다'라는 부제는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동안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활동을 펼쳐온 재능시낭송협회는 이번에는 시 퍼포먼스, 시 낭송, 시극, 스포츠댄스 등을 선보인다.

김귀숙 회장은 "시를 사랑하고 시인을 존경하는 시낭송가들이 광주를 빛내는 시인들의 시가 되어 감히 희망의 불씨를 피우 또 한번의 정기 공연을 준비했다"며 "시인들의 수많은 언어를 씨줄날줄처럼 음악과 함께 엮어서 가을밤을 수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귀숙 회장은 "이번에는 모든 회원들

이 참여해 행사를 펼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계절을 잊으며 연습을 하고 뜨거운 열정을 불태운 시낭송가들의 시간이 담겨질 뉘 모습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사는 식전무대로 최인영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연다.

이어 전희원이 함께 김중 시인의 '광주는 길'을 낭송한다. "희망을 심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기도하는 곳, 광주// 그렇다 광주는 음악소리 아름다운 별들이 내리는 곳이다/ 그렇다 광주는 한나절 태양이 팔 벌려 어깨동무하고/ 고통이나 시련도 사랑으로 곱삭아 익어가는 곳..."

김효연은 '천사의 요들'을 들려주고, 양동용 연출로 시 퍼포먼스 '양림동, 천정에 가고 싶다' (오소후 시인)를 선보인다.

이어 김 회장이 연출한 시 퍼포먼스 '꽃잎의 흉터' (전숙 시인)가 펼쳐지며 장정순은 살풀이 춤을 무대에 올린다.

전정숙이 연출한 '고려인, 풀의 노래' (이근모)에는 송성근, 이미경, 이호재, 윤점숙, 문은희, 최명희가 출연한다. 또한 윤혜정이 연출한 시 퍼포먼스 '그리하여 가을, 그리움이여'에는 김귀숙, 김문순, 김수하가 출연해 작품을 선보인다.

이준호와 배진영이 펼치는 스포츠댄스는 무대

를 활기차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숙이 연출한 '영원한 청춘의도시, 광주이야기'에 이어 김수하 연출 '우리는 모두 오월이었다'가 펼쳐진다.

5·18 때 고립된 섬 광주를 상징하는 '바위섬' (배창희 시, 곡)을 모티브로 팬플룻 연주도 관객들을 찾아가는다.

마지막 무대는 시극 '무등산, 무등산을 향하는 연가'. 김문순이 연출하고 임종복, 윤혜정, 박복숙, 정영준, 박영숙, 박향순, 박유순, 한미현이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한편 광주재능시낭송협회는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상무역 '목요일낭송' 등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찾아가는 시낭송' 재능기부를 통해 시의 보급과 시낭송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18 퍼포먼스' 장면.



싱어송라이터 안에는



퓨전국악그룹 화양연화

국악 내음에 '흠뻑' 가을 음악회

광주국악방송 '행복한 동행', 10월 6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다가오는 가을을 뭉신 적실 국악음악회가 열린다. '2022 광주국악방송 가을음악회 행복한 동행'이 오는 10월 6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펼쳐지는 공개음악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첫 무대는 '2022 제16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에서 은상을 수상한 피리밴드 저클(JC Crew)이 장식한다. 이어 퓨전국악그룹 화양연화가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 노래한다.

JTBC 프로그램 '풍류대장'에서 '산귀남' 애청으로 주목받은 소리꾼 임재현은 대중가요와 접목

한 가야금병창으로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듀엣으로는 독특한 음색의 싱어송라이터 안에는이 '상사화' 등 대표곡을 선보인다.

공연은 10월 6일 오후 7시 30분 현장공연과 함께 국악방송 라디오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광주국악방송 박은규 국장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원해진 문화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이 시대 한국음악의 흐름에 나란히 마음을 맞추는 '행복한 동행'으로 가을밤 따뜻한 위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1 '달려라 정이'
- 2 '핑크 핑크'
- 3 '순간이동'



광주여성영화제 권 단편 본선 진출작 12편

11월 9일~13일 상영·시상 광주극장·CGV광주금남로점

제13회 광주여성영화제의 권 단편 공모 본선 진출작이 공개됐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권 단편 공모는 광주여성영화제 유일 단편 경쟁 부문이다.

공모에는 400여편이 넘는 작품이 접수되는 등 여성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심사에는 광주독립영화제 프로그래머 정주미, 광주극장 코디네이터 이서영, 유튜브 '이토록백차오르느리뷰어' 진행자 피리, 13회 광주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이다혜, 김유완 등 다섯 명의 예비심사위원들이 참여했다.

예비심사위원회는 영화제의 캐치프레이즈 '이기는 목소리'에 주목해 '작고 낮은 목소리가 모여 이기는 목소리가 되길'이라는 마음에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서사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고 설명했다.

선정작은 박나나 감독의 '달려라 정이', 원은선 감독의 '가을이 여름에게', 김인혜 감독의 '그렇고

그런 사이', 남아름, 권오연, 차후미 탄자외, 나나 노카 감독의 '순간이동', 김서윤 감독의 '사랑합니다 고객님', 소지인 감독의 '어떤 불', 서시은 감독의 '지루박', 윤다영 감독의 '해피벌스 데이', 문혜인 감독의 '트랜짓', 박수안 감독의 '핑크 핑크', 김은희 감독의 '힘찬이는 지라서', 정지원 감독의 '헤드라이트'다.

권 단편공모 부문 본선 진출작들은 11월 12일에 상영된다. 이후 본선 심사를 거쳐 권 작품상과 권 특별상, 권 관객상 등 총 3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해 13회 광주여성영화제 폐막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본선 심사위원으로는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의 최진영 감독, 광주여성민우회 최희연 대표, 12회

권 단편경선 작품상 수상작 '행인'의 허지은 감독이 위촉했다.

권 관객상을 직접 선정할 관객심사단 모집은 오는 10월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영화제 공식홈페이지(www.wffi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13회 광주여성영화제는 오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광주극장과 CGV광주금남로점에서 열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이승권 교수, 프로방스 자연과 인간의 조화 강연

광주문화재단, 29~30일 문화예술 작은 도서관 강좌

이승권<사진> 교수는 유럽의 20여 문화도시를 답사하며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문화도시의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는 인문학자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문화예술 작은 도서관 이번 강좌는 이승권 조선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오는 29·30일(오전 10시)

조선대 인문대학 글로벌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임중인 이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태리 등 유럽문화수도도 지정된 도시의 장점을 우리의 문화도시에 접목하기 위한 도시공간에 전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프랑스 남부인 프로

방스의 자연과 도시뿐 아니라 인간의 조화로 운 삶을 도시의 가능성과 관련해 이야기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강 인원은 15명내외이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29일 까지 선착순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062-670-7698)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태성 '남도정신문화 계승확산 강연회'

한국학호남진흥원, 10월 7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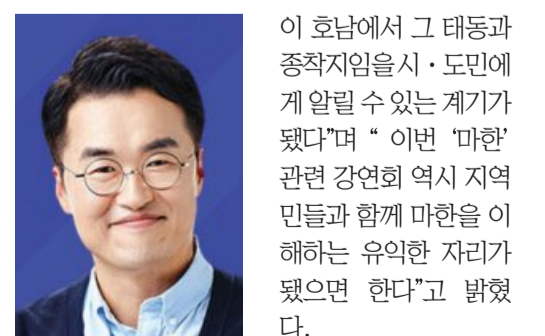
스타강사 최태성<사진>과 함께 하는 마한 주제의 강연회가 열린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은 오는 10월 7일 오후 1시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남도정신문화 계승확산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에서 '역사의 쓸모'의 저자인 최태성 강사는 '잃어버린 고대왕국 마한을 찾아서' 주제로 지역민을 만난다.

이번 강연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남도정신문화 강연회 연속성에서 마련됐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지난 실학 강연



이 호남에서 그 태동과 종착지임을 시·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마한' 관련 강연회 역시 지역민들과 함께 마한을 이해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는 무료이며 식전 국악 공연행사도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